

“팔관재계 일상서 적용이 중요”

부불연, 2014팔관회 울산스님 초청 토론회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수불)가 2014팔관회 봉행에 앞서 팔관재계의 의미를 짚어보는 학술 토론회가 마련됐다. 10월 9일 부산 안국선원 교육관에서 ‘팔관재계의 의미와 현대적 해석’이라는 주제로 열린 ‘2014 팔관회 울산스님 초청 토론회’가 그것. 이 자리에는 발표자 지현 스님(송광사 우주)을 비롯한 토론장 수진 스님(범어사 율학승가대학원장), 토론자 서봉 스님(해인사 율학승가대학원장), 사회자인 원허 스님(쌍계사 율원장) 등이 토론회를 이끌었다. 또한 해인사 율원 스님 17명, 범어사 율학승가대학원 스님 13명 등 학인 스님들을 포함한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하기도 했다.

불교가 자연스럽게 사회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4팔관회는 계율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있는 신행을 표교할 수 있는 행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 토론장 수진 스님은 “팔관회가 무형문화재 지정도 중요하지만 팔관재계를 통해 하루라도 스님처럼 계율을 지키는 것이 바로 진정한 팔관회이다. 현대 삶 속에서 우리

팔관재계 현대적 계율로 재조명 10월 9일 부산 안국선원교육관에서

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인식이 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도태시킨다. 오늘 토론으로 지켜야 할 8계율 현대적으로 해석해 모두가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발표자로 나선 지현 스님은 서론에서 계율을 지키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덕과 청정함에 대해 강조하고 본문에서는 불자가 지켜야 할 8가지 계율을 현대적으로 소개했다. 5계율은 탁났한 스님의 다섯 가지 마음

을 다함 훈련법을 인용해 삶에 대한 경



부산불교연합회가 주최한 2014팔관회 울산 스님 초청 토론회가 10월 9일 부산 안국선원교육관에서 열렸다.

의심, 관대함, 올바른 성생활, 주의 깊게 듣고 상냥하게 말하기, 올바른 소비가 소개됐고 지현 스님은 소박하고 정결한 생활, 침실 소박하게 꾸미기, 식사 때 지키기 등 3가지 항목을 추가하여 8계율을 완성했다.

지현 스님은 “팔관재계를 받는 대상은 보살계와 달리 제약이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하지만 축생의 오로지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계이기도 하다. 불자·비불자 구분하지 않고 이 계를 모두 따르면 평소 생활에서 변화를 얻을 수 있다. 더럽혀진 의복을 세탁하여 깨끗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며 8계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인 서봉 스님은 “팔관회를 통해 지적인 것을 전달하는 것보다

는 생활 속에 진정한 가치를 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템플 스테이, 법회 등에서 팔관재계를 포함시켜 8가지 계율을 알려야 한다. 또한 이슬람의 라마단 의식과 같이 하루라도 청정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조성되는 것도 필요하다. 사찰에서도 장건일 등 각각 특별한 날을 선정하여 팔관재계를 지키게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며 팔관재계의 보편화를 당부했다.

한편 부산불교연합회는 오는 10월 18일 팔관회에서 국왕친영행렬대, 더럽혀진 의복을 세탁하여 깨끗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며 8계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인 서봉 스님은 “팔관회를 통해 지적인 것을 전달하는 것보다

김나영 객원기자

성주사-범어사 3개월 만에 합의점 찾아

무관 스님 실사로 1년 6개월 주지 소임 맡아

부산 범어사(주지 수불)와 서해문도회가 창원 성주사 주지 임명 건으로 갈등이 장기화된 가운데 3개월 만에 극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서해문도회는 지난 7월 황령현의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주지 원일 스님이 급작스럽게 주지직을 사퇴한 후 범어사가 이를 자세히 조사하지 않은 채 신임 주지로 범어사 재무국장인 무관 스님을 성급하게 품선했다며 이에 반발해왔다.

반면 범어사는 종헌·종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고 무관 스님의 주지 소임 이행이 지연한다는 이견을 내놓아 양측 간의 갈등이 심화된 상태였다.

무관 스님의 성주사 진입 시도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범어사와 서해문도회는 10월 6일 범어사에서 회동하고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회동에는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성주사 前 주지 원정 스님, 서해문도회 대표 원욱 스님 등을 비롯한 서해문도회 스님들이 참석했다.

수불 스님은 서해문도회에 “금정총림 범어사 발전과 범어문중의 화합을 위해 본사 재무국장을 맡고 있는 무관 스님으로 하여금 공영사찰의 수범사찰이 되어주기를 기대



성주사 신도회가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에게 참회의 삼배를 올리고 있다.

하면서 성주사 주지 소임을 맡아 약 1년 6개월 동안 실사를 시행하며 또한 차기 성주사 주지는 본인의 임기 안에 서해문도 대표 스님과 협의 해서 임명 품선한다”고 서해문도회에 밝혔다.

원정 스님은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교구부장인 수불 스님께 참회하겠다. 앞으로는 문중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큰 스님을 잘 모시겠다”고 전했다. 또한 원정 스님은 종회의원 출마를 철회하며 범어사와의 원만한 관계 회복에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회동 후에는 성주사 신임 주지 무관 스님과 서해문도회 대표 원욱 스님이 자세한 협의 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무관 스님은 “실사를 진행함에 서해 큰스님인 흥교 스님을 잘 따르고 서해문도 스님들에게도 성주사찰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배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관 스님은 차기 주지 임명 건에 대해서도 서해문도 대표와 본사 주지 스님의 협의에 따른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원욱 스님도 “서해문도회와 신도회는 성주사 사태에 대해 사부대중 및 교구장 수불 스님을 대상으로 참회문을 발표하고 성주사가 정상화 되도록 협력한다”며 협의의 사항을 전했다.

범어사와 서해문도회 및 신도회는 이번 합의점을 찾은 것을 계기로 지난 3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양측 간의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했다. 하지만 성주사 前 주지 원일 스님의 황령 현의 이번 사태와는 별개로 검찰의 조사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성주사 신도회측은 “성주사의 안정화와 불교발전을 위해 이번 합의점을 믿어보겠다. 무관 스님의 실사 기간이 단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나영 객원기자

청암사승가대학 산사에서 염불 한마당

천년고찰 청암사(주지 상덕)가 10월 5일 제8회 산사한마당을 개최했다. 가을 속에 진리 속에 마음을 열고 환희롭게 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지역 학생들에 장학금 전달 후, 조계종 제1회 조계종 학인염불 시연대회에 참여해 최우상을 받은 학인스님들의 연주가

이였다. 수상작 ‘불러요 다라니’ ‘21세기 우리들과 2600년전의 부처님의 대화’ 등을 연주해 무대를 뜨겁게 달구었다.

청암승가대학장 지형 스님은 법문을 통해 “염불수행으로 생각을 비우고 오로지 부처를 이룰 수 있다”며 생활 속 수행을 강조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고운사 명부전 시왕탱화 점안식

회주 혜승 스님 법문 통해 지장보살 원력 강조



고운사는 10월 7일 명부전에서 10대시왕 탱화 및 문수보살 점안식을 봉행했다.

고운사(주지 호성)는 10월 7일 경내 명부전에서 10대시왕 탱화 및 문수보살 점안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여했다. 고운사 회주 혜승 스님은 법문을 통해 “지장경 사상의 핵심은 중생 구제를 위해 지장보살이 스스로의 성불까지도 포기했다는 것이

다. 지장보살은 중생을 일불승의 기르침으로 이끌어 성불에 이르게 한다. 모든 악은 짓지 말며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해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면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고 강조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원광법사에 대한 재해석 필요하다”

운문사 원광화랑연구소 제 2회 학술세미나

운문사가 10월 5일 경내 선열당에서 ‘제2회 운문사 원광화랑연구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회주 명성 스님과 주지 일진 스님을 비롯해 영남대 김성구 교수, 대구한의대 장호경 교수, 운문사가 대강사 영덕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나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화랑세속오계의 현대적 해석’을 주제로 행사가 열렸다.

회주 명성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원광법사의 불교사상에 근거한 화랑오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부처님의 자비와 보시사상에 바탕을 둔 사회적 실천력은 21세기 불교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정신의 패러디를 창출하여 건전한 사회발전의



운문사는 ‘제2회 운문사 원광화랑연구소 학술세미나’를 10월 5일 개최했다.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주지 일진스님은 개회사에서 “원광법사의 경이로운 해안과 지혜를 재해석하여 이 세대 우리 청년들의 혼을 일깨워 새로운 지표가 설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덕 스님(운문사 강원의 강사)은 ‘원광법사 연구에 대한 현황과 전망’ 주제 발표를 통해 “기존의 원광법사에 관한 연구가 화랑오계와 관련된 연구로 편중되어 있어 스님의 사상과 관념의 불교적 해석이 미진

하다”면서 “시대정신의 구현을 위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을 대표하는 비구니 수행도량 운문사는 2013년 원광화랑연구소를 개소한 이래 ‘원광법사의 불교사상’과 세속오계정신에 대한 연구와 신라화랑 정신문화의 전부를 연구하고 있다. 운문사 원광화랑연구소는 다음 달 초에 운문사 외곽의 화랑오계비를 경내로 옮겨 새로운 청년운동의 중심지로 널리 알릴 계획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창간 20주년

단, 1번의 기도로 당신의 사주를 확 바꿀 수도 있다

NAVER DUM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약사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중생제도하실 분 모든 기술 전수. 서울, 경기지역 포교원 원장님 모십니다. 최면술 / 퇴마술 / 기공술 / 자극요법술 전수생 모집 중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 한국 빙의 퇴마 최면연합회본부 경남 양산시 원동면 내포읍달길 19

대한불교 약사불종 약전임 자연치유원

천혜의 자연환경 토곡산의 정기로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부산역 상담센터 상담 / 문의 1899-8108. 010-9229-3801